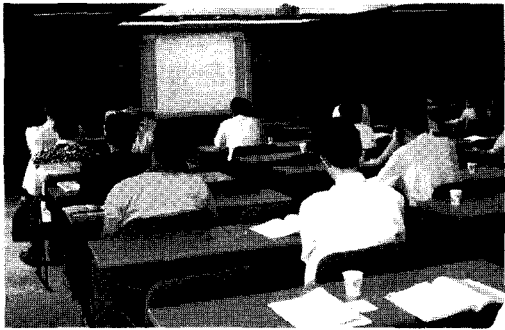


특허청 '2004 직무발명경진대회 및 직무발명 포럼' 개최



▲ 2004 직무발명경진대회와 함께 열린 직무발명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선진국 직무발명제도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6월 18일 한국지식 재산센터(KIPS) 19층 대회의실에서 '2004 직무발명경진대회 및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9명의 개인 및 단체가 참가를 신청하였고, 지난 5월 25일 1차 예비 심사 결과 현대자동차 연

무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일반 기업체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을 유도하여 사용자와 연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 시킴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직무발명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특허청 정성찬 사무관), '선진국 직무발명제도' (동국대 김선정 교수),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관례 및 최근 동향' (특허청 이재훈 공조기체과장)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기업체,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우수 직무발명가, 제도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직장에서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직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 직무발명제도 및 선진국의 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난

구개발본부 상무 등 11명이 개인 우수 직무발명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단체가 제도운영 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직무발명가 7명, 제도운영부문 3개 단체가 뽑혀 본선에서 사례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날 행사를 통해 직

네트워크 보안기술 통해 사이버 테러와 전쟁하다

해킹 및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기술'에 관한 출원이 활발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영향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맹위를 떨쳤던 세서(Sasser) 바이러스는 전 세계 천만대 이상의 컴퓨터에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분야에서의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출원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 분야별로 동향 변화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관련 출원은 1999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바이러스 관련 출원은 2000년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출원 동향의 잦은 변화는 '유행'에 민감한 기술 특성 때문으로 2000년 말에 '벤처 거품'이 해소되면서 벤처나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했던 바이러스 관련 출원은 대폭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연구소 등을 위주로 해킹관련 출원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고, 2003년 이후에는 기존의 해킹과 바이러스의 경계가 무너지고 각종 웹 바이러스가 훨씬 고도화·기능화되어 기승을 부리면서, 바이러스 관련 출원이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이러한 보안 기술 영역간의 통합화·고도화가 계속되어, 기존 보안 기술을 통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을 관리하도록 하는 '보안관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격에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디어내는 '장애허용 시스템'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생체 인식 등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을 통합한 인증 방법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안기술 적용 등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 알려드립니다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계획 안내

지역	일시	장소
순천시	7월 1일(목) 오후2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동해시	7월 7일(수) 오전10시	동해시 여성회관
인천시	7월 13일(화) 12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강당
강원랜드	7월 29일(목) 오후2시	강원랜드 호텔 연회장

* 각 지역의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미국 내 300대 특허 다등록 기업에 2개 기업 증가로 국내 기업 10개 포함되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해 미국에 특허등록을 많이 한 300대 기업 중 우리기업 10개 업체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8개 기업에서 2개 기업이 증가한 기록이다.

미국지재권자협회(IP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미국 내 특허 다등록 기업 순위에서 IBM(3천4백15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3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삼성전자는 1천3백13건의 특허

를 등록하여 세계 13위로 우리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랭크되었으며 LG전자, 하이닉스 등 전자 및 반도체 분야 기업이 강세를 보였고, 기계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순위로 올랐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삼성전기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새롭게 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년보다 2개 업체가 증가한 10개 업체가 순위로 포함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학이 42위(4백37건)에 랭크되는 등 대학들이 기술개발의 모태로서 유수의 기업

들을 제치고 300대 기업에 다수 포함되었는데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순위진입하며 위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세계 최대 기술시장인 미국에서 전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개발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祝 발명하는 사람들' 創刊 2주년을 축하합니다

Pay attention to the patent information, be free from your competitors!

“한국특허정보원은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신아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 특허 map작성 서비스
- TPDB(Topical Patent Database)서비스
- 정보가공 서비스
- 상표조사 서비스
- 기술가치평가 서비스
- IP컨설팅

- KIPRI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수행
-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수행
- 특허청 데이터관리 센터 운영
- KPA(한국특허영어정보) 발간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사업수행
-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운영
- 특허청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특허청, 특허기술 상설장터 내 '테마기술관' 설치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달 21일부터 특허기술 전문 거래시장인 '특허기술 상설장터'에 '테마기술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테마기술관'은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기술 상설장터' 전시기술 중 기술수요자 및 투자자의 관심을 끌만한 기술 분야의 제품군을 대상으로 격월로 기획 전시되며, 앞으로 기술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발굴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첫선을 보인 '테마기술관'에는 휴대용 금융입출금

기, 휴대폰을 이용한 휴대폰 간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기술 및 팬 마우스 등 '컴퓨터 및 통신관련' 기술이 전시됨으로써 기술구매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번 '테마기술관'을 운영하는 '특허기술 상설장터'는 특허기술의 거래·알선·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며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기술거래와 관련한 지원제도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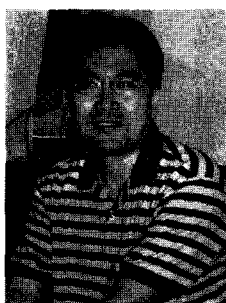
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03년도에는 91건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5월 말까지 31건의 기술거래 계약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술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엔 문을 여는 '테마기술관' 뿐만 아니라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특허기술 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기술보유자 및 기술거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무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People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통해 특허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종철(이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제공하고 있는 전문포털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에서 '특허 명세서 작성(화학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현종철 변리사는 특허법 강의만을 담당해온 지 3년차 베테랑 강사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서비스 되기 시작한 이 강의를 통해 현 변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럼으로써 특허출원을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소개를 한다면...

저는 변리사 4년차로 대한변리사회 특허법 강사, 한국특허아카데미 강사, 리&목 특허법률사무소 화학부 변리사, 이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학분야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지난 3년간 학원에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특허법을 강의했습니다.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 교육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마련, 저를 불러주셔서 온라인상에서 화학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와 같이 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명세서 작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명세서 작성은 쉽지 않은 일이라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변리사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몇가지 노하우를 알면 좀 더 쉽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변리사에게 맡길 경우에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제가 맡은 특허 명세서 작성은 기업체의 특허부나 신규 변리사, 업계 관계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물론 화학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분야들처럼 손쉽게 명세서 작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루 30분씩 일주일동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명세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교육 내용은 무료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시면 되죠. 또한 저의 강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 관련인들께서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통해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가들을 위한 말씀이 있다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은 원래 필요에 의해 탄생되어지는 것이니까요. 혼자서 특허 출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으시고 또한 변리사들을 찾아주십시오. 발명가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허분쟁 사례 통해 효과적인 특허관리 배운다

최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대규모 특허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의 국제특허분쟁 속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크고 작은 국제 특허분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의 특허분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특허관리 및 분쟁대응에 있어서 특

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 전략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명하는 사람들'에서는 매달 한가지씩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10가지 특허분쟁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분쟁 10가지 사례 전략 ①

자사제품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은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특허분쟁이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한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외국회사의 경우 일시에 다량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효과적인 대응을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사제품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은 항상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만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례] IBM vs 국내 PC업체

국내 기업이 IBM의 호환기종인 퍼스널 컴퓨터를 저가로 생산하면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IBM은 국내 PC업체(LG전자, 현대전자, 효성컴퓨터 등)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 1백60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PC업체는 IBM의 특허를 면밀히 검토한 결

과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하였고, 특허 침해된 1건에 대한 특허료만 지급함으로써 협상이 완료되었다.

이 경우처럼 일시에 1백건이 넘는 특허침해를 통보함으로써 단기간에 응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중국적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쟁사의 특허취득 동향과 기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기술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KIPRIS서비스(www.kipris.or.kr)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국내·외 특허동향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청에서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Patent Map 사업'의 결과물 및 '산업재산권진단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책 속의 이야기 ②

발명으로 꿈을 이룬 지구촌 여성들 더 싼 콘크리트를 개발한 핀란드 여성

1947년생인 엔지니어 아이노 하이키넨은 핀란드 중부의 루자베토니 회사에서 조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아이노는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생산 가격을 낮추는 방법

을 알아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비싼 재료인 시멘트 대신 값이 싼 천연 골재를 첨가하면 시멘트의 응집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 1981년 마침내 시멘트의 일부분을 용광로에 남은 광물질로 대체해서 일을 성공시켰고 1984년 그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아이노는 콘크리트 산업에 필요한 혼합물 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루자베토니 옆에 세워진 자회사의 총 책임자가 되었다. 아이노의 첫 번째 발명은 젓소 외양간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 재료였다. 그녀는 여러 분야의 기술 서적과 기사들을 읽어 콘크리트 기술 개발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특허를 위해 그것들을 대강 훑어볼 뿐이다. 전달하려는 요점만 읽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1988년 그녀가 출원한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특허의 성과는 토탄 폐자재를 10~30%의 시멘트 결합용도로 바꾸어서 콘크리트 가격을 20%까지 절감하는 것이었다. 아이노는 석탄이 타고 남은 재

를 정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7년 무역산업부에서는 쓰레기를 유용한 산물로 바꾸는 발명을 한 공로로 아이노에게 발명가상을 수여하였다. 아이노는 또한 1989년 두 개의 상을 더 받았으며, 1990년 8월에는 뛰어난 핀란드 발명가로 선정되었다.